



3면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은 위헌"

2024년 7월 12일 금요일 (음 6월 7일) 제354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전북-강원, 특별법 후속 개정 박차

전북·강원특별자치도  
양 지방정부 상생 협약  
자치도 성공 실현 위한  
자치권 확보 등 추진키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사진 오른쪽에서 세번째)는 11일 전북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상생협력 협약식'을 갖고 '특별자치도 성공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공동 합의문을 채택했다.

전북과 강원이 특별자치도의 성공 실현과 도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법 후속 개정 박차를 가하기로 손을 맞잡았다.

특히 지역이 주도하는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공존공영을 지향하는 공동 과제 추진에 힘을 쏟기로 약속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김관영 전북지사와 김진태 강원지사는 11일 전북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상생협력 협약식'을 갖고 '특별자치도 성공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공동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상생발전 업무협약은 중앙정부의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분위기 속에서 특별자치도 간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부족한 산업기반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데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등 비슷한 고민을 해 온 양 지방정부가 서로의 강점을 잘 활용하고 상호보완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양 자치도는 △자치입법

권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 및 학술교류, △국토종합계획수립(변경)시 특별자치도권역 반영, △문화 및 산악관광 활성화, △청소년 교류 활성화 등 6개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자는데 뜻을 모으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양 지방정부는 자치권 확보 등을 위한 후속 입법활동시 부처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속도감 있는 통과 등 상호 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 이후에는 김진태 강원지사가

도청 공원에서 '전북·강원 함께할 때 더 든든한 친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북자치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은, 양 광역자치체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현안과 이번 협약 체결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됐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과 강원은 스스로의 의지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어 서로 협력해야 할 다양한 분야가 있다"

며 "이 협약이 단순히 서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될뿐 아니라, 깊이있고 폭넓게 교류해 서로를 이해하는 협력의 큰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과 전북은 도민이 만드는 특별자치도라는 특별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 도가 상생하며 지방분권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 한인비즈니스 기업전시관 참여 도내기업 등록비 지원

전북자치도, 부스당 80만원 일괄 지원  
참가 희망 전북 소재 기업 참여 유도 위해  
8월 31일까지 한상넷 홈페이지 통해 등록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기업전시관에 참여하는 도내기업의 등록비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해외시장 판로 개척의 기회가 될 이번 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도내기업들의 참여 유도와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본사 또는 공장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부스당 80만원을 일괄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업전시회 참가 신청 등록비는 기본부스는 180만원, 바닥면적만 제공되는 독립부스의 경우 150만원이다.

대회기간 중 전북대학교 대운동장에 조성되는 기업전시관에는 기본부스와 독립부스로 구성된 총 300여개의 부스가 마련될 예정이다.

기업전시회 및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등 이번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8월 31일까지 한상넷(www.hansang.net) 사이트를 통해 등록 신청하면 된다.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재외동포 경제인들과 도내 기업인간 비즈니스 만남의 장이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해외 진출과 시장 확대의 발판을 마련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재외동포CEO 등 국내외 3천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전시 및 상담, 스타트업 경연대회 등 비즈니스 프로그램과 리딩 CEO 포럼 등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만호 기자

## 사방댐, 장마에도 산사태 피해방지 역할 '톡톡'

계류보전시설인 사방댐이 집중 호우에도 산사태 예방과 피해방지에 큰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전북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도내 일부 북서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방댐 및 계류보전시설이 설치된 곳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익산시 합라면 합열리 산35번지 일원에는 전곡 누적강수량 1위를 차지하는 309mm의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많은 토사와 유목이 내려

전북자치도, 도내 산지 적지·적소에 사방시설 설치  
상반기 조기 완공... 설치된 곳에 피해 발생하지 않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하류에는 지난 2022년도에 설치한 사방댐이 900㎡(25톤 덤프 53대 분량)에 이르는 토사를 막아 하류 지역 농경지와 주택을 보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사방사업은 산사태가 발생해 토석류가 하류로 내려오면서 생활권 연결 지역에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방댐 등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토사 유출방지, 홍수조절, 수원함양, 경관 보호 등의 효과를 갖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14개 시·군 산사태 취약지 및 산림재해 위험지역에 257억 원을 투입해 사방댐(55개소), 계류보전(35km), 산지사방(15ha) 등 105개소의 사방사업을 상반기에 조기 완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도내에는 사방댐 1,156개소, 계류보전 635km, 산림유역관리 29개소가 조성돼 산사태 등으로 인한 산림재해 방지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경호 전북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장은 "사방사업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주와 마을주민들의 많은 동의와 협조를 얻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 도내에서 올해 SFTS 환자 추가 발생

전북 보건환경연구원, 지난달 첫 환자 발생 후 추가  
"농작업·야외 활동 시 진드기 물림 주의해야" 당부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전경식)은 도내에서 올해 두 번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SFTS 환자는 김제에 거주하는 70대 여성 A씨로 발열 중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알려졌다. 7월 7일 구토 등 증상으로 도내 의료기관에 내원하였고, SFTS 증상이 의심되어 11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

첫 번째 환자는 순창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B씨로 제조작업 후 발열 및 무기력 증상이 나타나 광주 의료기관에 입원해 6월 17일 양성 판정

을 받았다.

SFTS는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고 야외활동이 활발한 4~11월에 많이 발생하며 중장년층 및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에서 감염률이 높다.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야외활동 이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전경식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진드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인 7~10월에 환자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작업이나 야외활동 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장자도

임피역